

# 2006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언어 영역 •

### 정답

1	③	2	①	3	②	4	②	5	②	6	②	7	⑤	8	③
9	④	10	④	11	②	12	①	13	⑤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④	19	⑤	20	③	21	②	22	①	23	⑤	24	③
25	①	26	④	27	②	28	③	29	⑤	30	④	31	⑤	32	①
33	④	34	⑤	35	③	36	③	37	③	38	⑤	39	①	40	③
41	④	42	③	43	⑤	44	①	45	②	46	②	47	⑤	48	④
49	①	50	②	51	④	52	③	53	③	54	④	55	⑤	56	②
57	②	58	①	59	④	60	①								

### 해설

<1번> 이제 미술 수업을 들려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사** : 오늘은 한자 서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울 서체는 모두 다섯 가지인데, 흔히 오체라고 해요. 각각의 이름은 전서, 예서, 행서, 초서, 해서입니다. 나눠 준 자료는 같은 글자를 다섯 가지 서체로 쓴 겁니다. 먼저 전서부터 설명하죠. 전서는 가장 오래된 서체인데요, 획의 굵기가 거의 일정해요. 그리고 획이 꺾이는 곳이 약간 둥근 것 같죠. 각 서체의 왼쪽에서 세 번째 글자를 보세요. 이 글자는 ‘갈 지’ 자인데요, 다섯 가지 서체 중에서 나무를 그린 것 같은 게 있죠. 이게 전서입니다. 전서는 이렇게 그림에 가까운 글자죠.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학생들** : 네.

**교사** : 이번에는 예서입니다. 예서는 전서보다 더 글자다워진 서체죠. 둥글둥글한 획이 더 직선화되었고 꺾인 곳이 더 모가 납니다. 특히 점획은 기울이지 않고 거의 반듯하게 세워 찍습니다. 역시 ‘갈 지’ 자를 보세요. 제일 위의 점이 수직으로 반듯하게 찍힌 게 예서입니다. 찾았어요?

**학생들** : 네.

**교사** : 이번에는 해서입니다. 해서는 가장 나중에 생긴 서체인데요, 예서보다 더 글자다워진 서체입니다. 여러분이 국어 교과서나 한문 교과서에서 본 한자와 가장 비슷해서 알아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행서와 초서는 예서나 해서를 흘려 쓴 거예요. 필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약간 흘려 쓴 것을 행서라 하고요,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흘려 쓴 것을 초서라 하죠. 그 중에서 초서는 너무 간략하게 줄여서, 글자를 쓴 본인이 아니면 거의 알아보기 어렵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서체를 모두 설명했는데,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학생들** : 네.

**교사** : 그럼, 해서를 먼저 찾아봅시다. (사이) 해서가 어느 건가요?

1. [출제의도] 설명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사는 전서와 예서, 행서와 초서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었지만, 해서에 대해서는 ‘국어 교과서나 한문 교과서에서 본 한자와 가장 비슷하다.’는 것과 가장 나중에 생겼고, 예서보다 더 글자다워진 서체라고 하였다. 즉,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한자의 형태가 곧 해서와 가장 비슷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문 교과서나 국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한자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③이 답이다.

<2번> 이번에는 친구 사이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영란아, 사회 수행평가 했니?  
**여** : 응, 내가 맡은 부분은 겨우겨우 어떻게 했어. 아까 조장한테 냈다.  
**남** : 그럼, 나 좀 도와줄래?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방과 후에 같이 PC방에 가서 좀 도와줘.  
**여** : 어떻게 하니? 나도 오늘 할 일이 많은데. 과제물이 아직도 2개나 남았어. 한문도 있고, 국어도 있고. 더구나 한문은 내일까지 내야 하잖아.  
**남** : 그럼, 너 조사해 놓은 자료라도 좀 빌려줄래? 그거라도 좀 보게.  
**여** : 너희 조랑 우리 조랑 과제 내용이 다르잖아. 내가 모은 자료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남** : 어, 그렇구나. 이거 정말 큰일이네. 음-. 영란아-, 그래도, 이따가 시간 좀 내 주라-.  
**여** : 나도 내 숙제해야 한다니까. 시간 없어-.  
**남** :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영란아, 그러지 말고.  
**여** : 애도, 나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널 도와줘?

2. [출제의도] 발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묻는 문제이다. 여학생은 자신이 바빠서 남자 친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다.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은 자신에게 사정이 있어서 남을 도와 줄 여유가 없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3번> 이번에는 인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고려인삼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짜 고려인삼이 나돌 정도죠. 그러면 인기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밝혀 보도록 하죠.

삼은 온대지역에서도 냉(冷)한 기후를 가진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재배합니다. 외국 삼은 그냥 삼(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삼은 인삼(人蔘)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에 잠긴 것 하기도 하고, 두 다리를 적당히 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삼은 사람을 꼭 닮아 보이기 때문에 인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양은 당근 모양인 중국의 삼칠삼이나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는 일본의 죽절삼, 잔뿌리가 없는 미국의 화기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고려인삼과 외국 삼은 오이와 참외처럼 종(種)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효능도 다르죠. 고려인삼에는 사포닌을 포함해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삼의 대표 성분인 사포닌은 인삼 외에도 감초, 도라지, 더덕 등 500여 종류의 자연계 식물 및 해삼, 불가사리 등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다량으로 먹으면 독이 되지만, 인삼의 사포닌은 많은 양을 오랫동안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삼에 함유된 사포닌도 지금까지 서른다섯 가지의 하위 성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인삼에는 모두 서른네 가지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 삼에는 여덟에서 열네 가지 정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 삼에는 향암 성분과 향치매 성분이 전혀 없고, 같은 무게에 포함된 사포닌의 함유량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급의 중국 삼이 600g에 400위안 정도를 받는 반면에, 고려인삼은 1등급이 17,000위안 정도를 받으니까, 가격 차이가 무려 40배가 넘죠.

3. [출제의도] 말한 내용의 개략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이다. 삼은 온대지역에서도 냉한 기후를 가진 한반도 등지에서 재배한다고 하였고, 고려인삼 최상품이 중국 삼 최상품에 비해 4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삼은 사람 모양이어서 인삼이라고 하고, 중국 삼은 당근 모양, 일본 삼은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는 모양, 미국 삼은 잔뿌리가 없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고려인삼에는 사포닌,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활성 성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배 기간에 대한 정보는 이야기 속에 없다.

<4번> 이번에는 우리말의 단어 만들기에 대한 수업 내용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에는 단어들이 합쳐져 새 단어를 만들 때 작용하는 원리들 중에서, '거리'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겠어요. 이 원리를 '나 먼저 원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에게서 가까운 것을 앞세우고, 먼 것을 그 뒤에 붙입니다.

'거리'는 '공간적인 거리'와 '시간적인 거리',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간적인 거리'와 관련된 말들은 '여기저기', '이쪽저쪽', '이리저리' 등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저기'보다는 가깝죠. 나머지 말들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을 '저기여기', '저쪽이쪽', '저리이리', 이렇게 쓰는 경우는 못 봤을 겁니다. '시간적인 거리'도 있다고 했지요? '엇그제'가 그 예인데요, 오늘에 가까운 '어제'를 앞에 두고, 그 뒤에 '그제'를 붙인 거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거리'의 예도 보죠.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를 포함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남'을 포함하는 말이 뒤에 붙는 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회담을 하면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일한 정상회담'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4. [출제의도] 설명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수업에서 설명한 원리는 새 단어를 구성하는 단어들 중 '나'에 가까운 것이 앞에, 상대적으로 먼 것이 뒤에 배열되어 합쳐진다는 것이다. 우리말의 지시어인 '이, 그, 저'는 '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지시하고, '그'는 말 듣는 사람과 가까운 것을, '저'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현재가 '나'에게 가깝고, 과거나 미래는 멀다. 심리적으로는 '나'가 포함된 단체나 기관이 가깝고 그렇지 않은 것이 멀다. ②의 '이만저만'에서 '이만'은 '상태, 모양, 성질 따위의 정도가 이만한'의 뜻인 관형사나 '이 정도로 하고'의 뜻인 부사로 쓰이며, '저만'은 '상태, 모양, 성질 따위의 정도가 저만한'의 뜻인 관형사로 쓰인다. 즉, '이만저만'은 '이, 그, 저'의 거리가 적용된 부사이므로 답으로 적절하다.

<5~6> 이번에는 '사형 제도'에 관한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흉악범들에게는 경고의 효과가 있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여론 조사 기관의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 다수가 사형 제도 유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 : 물론 흉악범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진짜 범인이 밝혀져 풀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 :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들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반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정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 : 아무리 정비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의 결과가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나온다면, 올바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중간에 감형해 주지 않고, 보석도 허용치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선고가 잘못됐거나 무죄로 밝혀졌을 때도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5. [출제의도] 토론의 쟁점을 묻는 문제이다. 남자는 사형 제도의 유지에 찬성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자는 흉악범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사형 제도는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은 사형 제도의 유지 여부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것이 곧 토론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발언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여자는 첫 발언에서 남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을 함으로써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 발언에서는 사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는 남자의 발언에 대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을 역시 질문 형식을 취하여 제시함으로써 반박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주장에 논거를 제시하였다. ③ 두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았다. ④ 여성 토론자는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첫 발언에서 '진짜 범인이 잡혀 풀려난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한 사실 논거일 뿐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사실로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두 사람 모두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쓰기 과정에서 주어진 시각 자료를 통해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연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먼저 주어진 시각 자료를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자. 이 시각 자료는 복잡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인물 유형이 드러나고 있다. ㉠은 복잡한 교차로에서 여유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은 진입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자신의 처지를 앞세워 무리하게 진입하는 그림이다. 이로 인해 다른 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은 복잡한 도로이지만 다른 차가 진입하려 하자 양보하고 있는 그림이다. ㉣은 자신도 차를 가지고 나왔으면서도 남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 도로가 혼잡하게 되었다고 짜증을 내는 그림이다. ㉤은 차도가 혼잡하자,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 버스 전용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그림이다. 즉 운전자의 비양심적인 측면이 부각된 그림이다. 이와 같은 시각 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⑤는 비양심적인 측면이 부각되거나, 준법 의식이 강조되는 내용이 연상되어야 한다.
8. [출제의도] 맞춤법과 문장 호응을 고려하여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그러기에'의 바로 앞 문장인 '문화 전쟁의 무기는 ~ 때문이다.'는 '독서율이 낮으면 문화 전쟁 시대를 이겨낼 수 없는'의 이유가 되며, 뒤에 이어지는 문장 '책을 읽지 않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결과가 된다. 이유와 결과를 연결하여 주는 접속어로 '그러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러기에'를 그냥 두거나 '그러므로', '따라서' 등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9.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을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여 승자와 패자를 떠나,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④는 주제(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함)와 의문문의 형식, 비유적인 표현(봄바람처럼 따뜻하게)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감상이라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은 주제와 의문문의 형식을, ②와 ③은 비유적인 표현(드라마 같은 승리, 용서는 부드럽지만 강한 힘)만을, ⑤는 의문문의 형식만을 담고 있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1>은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료2>는 생산가능인구(청장년층)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3>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자료1>과 <자료2>만으로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인구 고령화를 앞당기는 원인임을 알 수 없다.
11. [출제의도] 개요를 수정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개요 'II-1'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한류 육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와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것을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하나, ㉠은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으로 많은 문화가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한 후, 바르게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술잎'은 '술'과 '잎'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나누어야 하며, '썩어'라는 말은 용언의 어간 '썩-'에 어미 '-어'가 결합된 형태이며, '보았다'는 '보다'의 어간 '보-'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았-', 어말어미 '-다'로 구분된다. 이는 각각 실질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형태소로 분석된다.

**13. [출제의도]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비판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영상물의 대상이 한 학급으로 되어 있고, 구성 방식을 학급 단체 활동과 개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는 '교장 선생님 말씀 등을 소개하여 삶의 교훈이 드러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서 급우들의 활동으로 한정된 제작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14. [출제의도] 어휘의 조어 방식을 통한 의미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명사에 '-다'를 붙일 때, 제시한 '명사'의 구체적 의미가 살아있는 경우이다. ㉢의 경우 '사람이나 동물의 뼈를 싸고 있는 부분'의 의미와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의 의미를 가진 예와 짝지은 것은, 원래의 구체적 의미가 살아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19] 현대 소설,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중에서 「일용할 양식」**  
 쌀과 연탄만 팔던 경호네가 가게를 넓혀 김포 슈퍼로 확장 개업을 하자, 김 반장의 형제 슈퍼도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물건을 싸게 팔던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앞에 '싱싱 청과물'이 나타나자, 김 반장과 경호 아버지는 둘이 힘을 합쳐 새로운 경쟁자를 없애자는 동맹을 맺는다. 김 반장과 경호 아버지의 동맹 때문에 '싱싱 청과물'은 문을 닫게 된다.

**15. [출제의도] 소설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싱싱 청과물 사내가 김 반장에게 대드는 장면에서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지물포 주씨의 모습, 싱싱 청과물이 폐업을 한 다음 동네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각자의 입장과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16.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갈등의 유형과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김 반장은 싱싱 청과물의 개업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생전 보지도 못한' 싱싱 청과물 사내가 자신의 장사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싱싱 청과물 사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오답풀이]** ㉠ 경호 아버지는 자신과 김 반장의 방해로 싱싱 청과물이 문을 닫은 사실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 싱싱 청과물 사내는 김 반장과 경호 아버지의 방해로 과일을 팔지 못하는 입장 이므로, 내적 갈등이 아닌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사건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서술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술자는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중립적인 태도로 보여주고 있다. 즉, 서술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한 채, 동네 여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일관되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8. [출제의도] 작품을 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싱싱 청과물 사내에게 가해지는 김 반장과 형제 슈퍼의 싸움이 '먹고 살기 위해서'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싱싱 청과물이 당하는 장

면과 폐업을 하고 난 뒤의 장면에서 동네 여자들이 보이는 동정적인 태도는 폭력에 무감각하다고 보기 어렵다.

**19. [출제의도] 비유적 표현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김 반장의 인정이 없고 냉혹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문장이다. 막 떨어질 것만 같은 '칼날'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20~23] 예술, 김해성, 「풍속과 현실을 보는 눈」**  
 이 글은 풍속화의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 경향을 소개하여 조선 시대의 풍속화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풍속화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20.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표제와 부제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흐름은 서두에 일반적인 풍속화에 대한 인식, 본문에 풍속화의 등장 과정, 신윤복, 김홍도의 사례, 풍속화의 의의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은 풍속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이다. 따라서 이 글의 표제로는 '풍속화의 의의'가 적절하며 신윤복, 김홍도에 대한 내용이 중심 화제가 되고 있으므로 '신윤복, 김홍도를 중심으로'가 부제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부제에서 말한 화가의 기법은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두 화가의 성격이나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인데, ㄱ, ㄴ, ㄷ은 본문에서 모두 확인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이다. ㄹ의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하거나 추리할 만한 단서가 없고, ㅁ에서 객관적 태도라고 한 것은 오히려 신윤복의 특징에 해당되며 지문을 통해서 판단할 근거가 없다.

**22. [출제의도] 중심 제제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말한 풍속화는 관념적인 산수화에 비해 서민적인 일상사의 장면이나 유희 장면을 대상으로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림이다. 이러한 의미에 벗어나는 것은 ㉠번 산수화이다. 이 그림에는 서민의 삶의 모습이나 유희의 장면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3.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앞에는 '반면'이 있으므로, ㉣에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양상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 변화의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사대부들의 취향에서 벗어난'과 관계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리할 때, ㉣에는 사대부와 관련되면서 그 앞의 내용과 대조적인 ㉤가 적절하다.

**[24~27] 인문,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는 왜 배우나」**  
 이 글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이 글에서 역사는 우리의 위치와 목표를 확인하게 하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쓴 글이다. 첫 문단에서는 역사와 역사가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둘째 문단에서는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 오늘날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개인과 역사적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역사가 지니는 효용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앞의 글을 정리하면서 중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25. [출제의도] 서술상의 전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일관된 논지를 가지고 전개한 글이다.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이를 종합하는 글쓰기 전략은 없으며

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일기, 지침서, 참고서 등 비유적인 어휘를 통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논지를 확장시키고 있다. ④ 궁예, IMF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자동차를 타고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상황을 가정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유사한 말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이 글의 주제는 역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사는 인간에게 현재 자신의 위치와 목표를 확인하게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우리 인간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견해가 나타난 것은 ④이다.

27. [출제의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는 새로운 해석의 내용이 기존의 해석과 다른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해석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기존의 해석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고, 새로운 해석은 이와 다르게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 ③ 묘청의 서경 천도에 대해 기존의 해석이 반란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새로운 해석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④ 향약에 대해 기존의 해석은 유교적 풍속을 널리 보급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했다지만 새로운 해석은 부정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⑤ 기존의 해석은 당파에 대해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새로운 해석은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28~32] 현대시, (가)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신경림, '갈대' / (다) 복효근, '대숲에서 뉘우치다'  
(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또는 순진한 낭만적 꿈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시이다. 이 시는 넓은 바다와 작은 나비, 두려운 바다와 연약한 나비의 속성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인간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며, 또한 사회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존재 문제로 파악한 시이다. (다)는 어린 시절의 순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반성을 드러낸 시이다.

28. [출제의도]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갈대'는 자기를 흔든 것은 '바람', '달빛' 등의 외재적 조건이 아닌 스스로의 '울음'인 내재적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 삶이 제 몸을 흔드는 그런 울음으로 지탱되고 있으며, 울음은 곧, 삶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는 둘째딸 인혜의 순수함을 빼앗아 버린 화자가 대숲에서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가)에는 '서글픈', (나)에는 '울음' 등의 시어를 통해 슬픔을 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는 슬픔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9. [출제의도] 시의 상황과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어린 나비가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인식한 순진함 때문에 바닷물에 날개만 젖어 돌아온다는 설정이다. 이 시에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좌절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⑤는 미래에 대한 도전 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30.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둘째딸 인혜가 대숲에서 나는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고 한 데서 출발하여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 '하늘 푸른 곳', '실핏줄', '실개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어들은 결국

어린 시절의 순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어들로 보아야 하며, 지적 탐구심과 연결될 수 없다.

31. [출제의도] 시의 심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공감각적 심상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 '푸른 물소리'는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 나타낸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시각적 심상; ② 청각적 심상; ③ 청각적 심상; ④ 촉각적 심상

32. [출제의도] 시의 전체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어른의 시각으로 깨뜨려 버리고 나중에 뉘우치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은 산타에 대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깨뜨린 엄마의 설명과 후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시에서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제시한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

[33~36] 언어, 정회원, '외래어란 무엇인가?'  
외래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33.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①은 첫째, 둘째 문단에서, ②는 첫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③은 셋째 문단에서, ⑤는 둘째, 넷째, 다섯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④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문제이다.

마지막 문단의 내용 중 특정 단어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직업 또는 관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구분이 쉽지 않다.'고 했으므로, ④와 같이 객관적인 구분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스', '오너' 등의 단어는 실제로 '국어사전에 따라 표제어로 실리기도 하고 실리지 않기도 한다.'라고 했으므로 ⑤는 잘못된 진술이다.

35.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 어휘들의 사용 빈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선글라스'는 그 빈도가 98%에 달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안경'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선글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플라워'는 4%밖에 되지 않으므로 '꽃'이라는 고유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지문의 셋째 문단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선글라스'나 '헤어스타일'은 우리말에 완전히 정착하여 거의 고유어나 다름없이 쓰이는 것이고, '플라워'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③이 가장 적절한 답이다.

[오답풀이] ① '플라워'나 '프라이스'에 대응되는 '꽃'과 '가격'은 본래 우리말에 있었던 말이다. ②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유입 시기가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④ '노트'와 '캘린더'에 대응되는 '공책'과 '달력'은 각각 37%, 57%로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다. ⑤ '캘린더'의 경우 앞으로 계속 많이 사용될지 그렇지 않을지 예상할 수 없으며, '헤어스타일'은 83%의 사용 빈도로 보아, 우리말에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에 맞는 구체적 예를 찾는 문제이다.

㉠은 외래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귀화어에 대한 설명과 같은 것이므로 '고무'가 이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컴퓨터'와 ② '인터넷'은 최근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많이 쓰이게 된 말이어서, ④ '텔레비전'은 유입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외래 어휘라는 인식이 남아 있으므로, ⑤ '오너'는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외국어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의 예로 적합하지 못하다.

[37~40] 사회, 송복,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이 글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 사회에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하

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이다.

37. [출제의도] 논지 전개 of 흐름을 파악하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지도층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일반 국민을 도덕 체계로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③에서 역사적으로 지도층의 행위가 사회의 완벽한 기준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한 말이라고 볼 수 없다.

38. [출제의도] 세부적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답지에 제시된 내용은 각 문단의 세부 내용과 관련된다.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①은 첫째 문단, ②는 넷째 문단, ③은 둘째 문단, ④는 다섯째 문단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지어 ⑤번 답지를 살펴보면, 이 글의 글쓴이는 넷째, 다섯째 문단에서 선진국 사회의 지도층이 '존경 받는 상층', 또는 '도덕적 상층'임을 드러내었을 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정착된 사회에서 일반 국민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39. [출제의도] 핵심 생각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과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면 지도층은 집안의 어른이 되고 집안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들 어른이 솔선수범(率先垂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자료 해석을 통해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지도층의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전문가들 또한 같은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 또는 '도덕적 상층'이라 불리지 못하는 이유를 보완하는 내용의 자료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41~45] 고전 소설, 지은이 모름, '박씨전'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특징 ① 병자호란을 소재로 여성을 소재로 삼아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민족정신을 일깨움. ② 여성도 남성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면에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줌. ③ 괴이하고 비현실적인 성격이 드러남.

41. [출제의도] 소설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보다는 대화와 사건에 대한 서술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너를 여기서는 용서한다.'는 말은 비록 계화가 한 말이긴 해도 박씨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계화를 시켜 용골대를 살려주겠다는 것은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너그러워서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은 용골대와 호병을 물리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서 박씨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 용골대는 박씨와 계화에게 당한 후에 전의를 상실하였고, 그 모습이 임경업 앞에 왔을 때에도 이어진다. 황망히 말에서 내려 임경업에게 편지를 올리는 부분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전기성'의 의미를 알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괴이한 요소와 비현실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가를 찾는 문제이다. ⑤에서 '낭관(郎官) 두 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왔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공중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도술을 부리는 등의 행위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44. [출제의도] 문맥에 맞게 한자 성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에서는 그런 상황을 찾아 볼 수 없다. 각 행동 주체를 보면, ㉠은 상감, ㉡·㉢은 용골대, ㉣은 임경업인데, 어떤 누구도 남을 믿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풀이] '노기충천(怒氣衝天)'은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의 뜻으로 ㉠에 적절하며, '애걸복걸(哀乞伏乞)'은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빌'의 뜻으로 ㉡에, '극악무도(極惡無道)'는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도리에 완전히 어긋나 있음'의 뜻으로 ㉣에, '망연실색(茫然失色)'은 '정신이 혼미하여 얼굴이 하얘지다'의 뜻으로 ㉠에 적합하다.

45.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 '우리 민족의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민중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지만, 패배한 전쟁인 병자호란은 '역사적 사실'인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으므로 틀리며,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민중이 소망한다는 것도 잘못된 진술이다. 이 소설이 허구적 사실을 서술한 이유는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작가의 의도와,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을 느끼는 민중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46~49] 과학, 레프 G. 블라소프 외, '생각 1g만으로도 유쾌한 화학 이야기'  
화학 반응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은 그 진행 속도가 각기 다르다. 그리고 같은 반응의 경우라도 조건에 따라 속도에 차이가 난다. 그 중에서 온도가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물 분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한 글이다.

46.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 중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진술이 있고, 또,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응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②에서 상온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온도 변화와 화학 반응이 비례한다는 점과 관계되고, ③ 마지막 문단에서 극단적인 경우 생명체도 없어진다는 말과 관련되어 있으며, ④ <보기>의 실험에서는 '빛'이 중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과 연관되고, ⑤ 첫 문단에 언급된 내용으로 모두 맞는 말이다.

47. [출제의도]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첫 문장의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이다. 그런데 ⑤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첨가한 다른 물질이 없고, 따라서 새로 생성된 화합물도 없다. 다만 열음이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물리적 변화만 일어난 것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 화합과 그로 인해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이므로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하다.

4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그림 자료를 통해 이해하는 문제이다.

[A]부분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끼리,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다가(L), 결합력이 약해지면 원자가 떨어져(C),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H) 물 분자가 된다고 했다.

49.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글에서 '화학 반응의 속도'와 '온도'는 상관 관계가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 반응이 활발해진다고 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화학 반응이 더디게 진행된다. ②, ③은 온도가

높아져서 화학 반응이 활발해진 사례이고, ④, ⑤는 온도가 낮아져서 화학 반응이 더디게 진행된 사례이다. 그런데 ①은 온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문질러 온도를 높인 경우이므로 전혀 다른 상황이다.

**[50~54] 기술,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효율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공해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곧 연료전지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50. [출제의도] 글의 문단별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문단별 중심 내용'을 묻고 있다. (나)는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기 생산 방식을 설명한 후, 이와 대비하면서 연료전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연료전지는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공해가 없는 환경친화적인 발전 방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나)의 중심 내용은 '연료전지의 발전 원리와 그에 따른 장점'이다.

**51.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주선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우주선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다가 오염 물질의 최소화라는 난제가 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것이 연료전지이다. 효율이 좋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연료전지를 개발하여 우주선 작동에 따르는 난제를 해결한 것이다. 따라서 연료전지가 우연히 개발되었다는 ④는 타당하지 않다.

**5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존의 전기 발전 방식이 에너지를 3단계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전기를 얻었다면, 연료전지는 중간 단계 없이 화학에너지에서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는 것이 [A]이다. 다시 말해 연료전지는 기존의 발전 방식에서 거치던 중간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유통 단계를 생략해서 회사의 이익을 향상시켰다는 ③의 진술은 [A]와 유사한 상황이다.

**53.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 '수소'는 메탄올이 연료변환기를 거치면서 발생된 것으로, 이것이 다시 연료전지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소'는 연료변환기와 연료전지 사이에 있는 ㉠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는 '메탄올', ㉢는 '공기', ㉣는 '물', ㉤는 '전기'이다.

**5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2>에서 해결책으로 '화력발전소 건설 방법'과 '기존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방법', 그리고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는 방법' 등의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는 방법'이라는 해결책에 대한 검토로 '규모가 커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연료전지발전소 부분을 설명한 (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연료전지발전소는 소규모로 건설할 수 있어 적은 투자비가 든다고 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② '화력발전소'는 공해를 배출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서 자연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자연 생태를 보호해야 할 국립공원 안에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③ 마을은 산 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 쓰기에는 송·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⑤ (마)에 진술되어 있는 것처럼 '연료전지발전소'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55~60] 수필 복합**

(가) 김동명, '어머니' :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난 수필이다.

(나) 박인로의 시조 : 어느 날 감을 보고 품어 가려 했으나,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라는 것을 알고 슬픔 속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다) 지은이 모름, '사모곡' : 어머니를 '낮'에, 아버지를 '호미'에 비유하여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것보다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5.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는 어머니를 '낮'에 아버지를 '호미'에 비유하여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노래가 교훈을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우리 주변에서 낮과 호미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를 부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낮과 호미는 필수적인 것들이므로 그만큼 익숙한 것이었을 것이다.

**56. [출제의도] 산문에 운문을 삽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운문을 서두에 배치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글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풀이]** ㄴ.은 비판적 태도가 글의 내용과 맞지 않고, ㄷ.은 지방색이나, 향토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7. [출제의도] 작품 속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는 상 위에 놓인 감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슬퍼한다. 부재(不在)하는 어머니에 대한 회한과 한탄,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다.

**[오답풀이]** ㉡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느끼는 따뜻한 마음이, ㉢, ㉣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은 화자의 원망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58.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발상과 표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는 아버지를 '호미'에 어머니를 '낮'에 비유한 후, 그 차이에 주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 때 표현법은 대조이다. ①의 '구름'과 '바람'도 좋으나 '물'이 더 좋다는 발상과 표현이 가장 유사한 것이다.

**[오답풀이]** ④ 언뜻 보면 비교와 대조의 방식이 있는 듯 보이지만 열거와 나열을 통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59. [출제의도] 시어의 시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화자는 남편이 좋아하던 '설렁탕'을 통하여 죽은 남편을 회상하는 것이고, (나)의 화자는 '감'을 통하여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의 '비단옷'은 어머니를 회상하였을 때 기억나는 것이며, 또 금의환향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60. [출제의도] 내재적 관점으로 문학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내재적 관점은 형식적 요소인 언어, 표현법 등 작품 속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오답풀이]** ②는 가족 관계를, ③, ④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⑤는 작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한 외재적 관점이다.